

9월 세번째 주 그룹큐티나눔

백만 대군을 상대할 손



사사기 7:1-14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주 믿는 사람 일어나(찬송 357장, 구 397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2차 세계대전 초, 프랑스 디케르크 해변에 고립된 연합군에게는 짙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군 수뇌부조차 전원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산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돌연 멈췄고, 거대한 군함 대신 수백 척의 작은 어선과 유람선들이 바다를 메웠으며, 때마침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적의 눈을 가려 주었습니다. 결국 3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계획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기 시작하시는 ‘기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과감히 줄이십니다(1-8절).

1) 처음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동원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3절)

2만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니, 처음에는 총 3만2000명이었다.

처음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총 3만 2천 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두고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기에, 문맥만 보면 이스라엘의 전력이 매우 우세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는 무려 13만 5천 명에 달했다(삿 8:10).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적군의 사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다. 이렇듯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은, 이 전쟁이 ‘군대의 규모’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 신뢰’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임을 역설한다.

2) 하나님이 군대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병력의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학적으로 보면 기습이나 탁월한 지형지물 이용, 전술적 정예화를 통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싸움은 아니다. 전쟁사에는 이 정도의 수적 열세를 천재적인 전략으로 극복한 사례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경계하신 지점이 바로 여기서다. 만약 이 인원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대신 기드온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자신들의 용맹함을 앞세워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며 교만의 덫에 빠질 것이 뻔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승리의 공식을 자기 분깃으로 챙길 실낱같은 가능성마저 지워 버리길 원하셨다.

3)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군대는 총 몇 명입니까?(7절)

300명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남은 1만 명의 병사들을 물가로 인도하신 뒤,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입을 직접 댄 자가 9,7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훔쳐 먹은 자는 고작 300명이었다. 흔히 이 300명을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준비된 정예병’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군사들의 전술적 자질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자만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적은 쪽’을 선택하셨을 뿐이다. 만약 300명의 뛰어난 자질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능력을 자랑했을 것이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 앞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300명은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숫자’에 불과하며, 바로 그 절대적 무력함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홀로 빛나는 구원의 무대가 될 것이다.

나눔 1 우리의 두려움과 과시욕이 담긴 ‘ 많음 ’을 비워 낼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포장을 걷어 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영적 허영심이나 계산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안겨 주십니다(9-14절).

1) 기드온이 목격한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는 어떠했습니까?(12절)

골짜기에 누운 백성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는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다.

기드온은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한밤중에 정탐한다.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본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적군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군이었다. 성경은 이를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래’로 묘사한다.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 떼는 한 지역의 모든 식물을 단숨에 초토화하는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대규모 군대의 파괴적인 세력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메타포였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던 낙타 부대까지 모래알처럼 깔린 모습을 보았을 때, 기드온의 심장은 얼어붙었을 것이다. 고작 300명의 군사로 상대해야 할 13만 5천 명의 위용은 사명감마저 삼켜 버릴 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거대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주눅 드는 기드온의 모습은 거친 세상 속에서 매일 믿음의 싸움을 건너며 흔들리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연약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2)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을 미디안 군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14절)

이는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해몽한다.

보리떡은 고대 근동에서 가난한 농민들이나 먹던 보잘것없는 양식을 상징한다. 해변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기드온과 그의 300명 군대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초라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적군의 꿈속에서 굴러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거대한 장막을 단숨에 쳐부순다. 더 놀라운 것은 적들의 입술을 통해 이 승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장 두려워하던 ‘적들의 목소리’를 역설적인 위로의 통로로 삼으셨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라는 절망적인 수치 앞에서 얼어붙어 있던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완벽한 동기부여이자 세밀한 배려다.

나눔 2 내 삶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현실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며 기도로 맡겨 드릴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눔 3 군인 300명만 남기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오늘 내가 기쁘게 순종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내 힘과 숫자를 의지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용기를 주소서.

공동체 - ‘ 많음 ’과 ‘크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려놔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